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립경동굴유적



발굴전 동굴의 입구



발굴후 동굴의 내부



1. 대표적인 표본화석들
사슴머리뼈, 늑대뿔뼈, 복작노루아래턱뼈, 노루발뒤축뼈, 노루(미정종)뿔, 사슴(미정종)견갑골, 사슴뿔뼈, 누렁이뿔뼈, 큰쌍고릴이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유적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강동군 립경로동자구에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새로 발굴한데 기초하여 그에



오른쪽아래둘째작은어금니



머리통뼈 조각들 인류화석들



소나무속, 너도밤나무속, 팽나무속, 금송나무속, 국화과, 버드나무속, 느릅나무속, 느티나무속, 봉의꼬리속, 노가지나무속, 참나무속, 능쟁이과 (확대배율 800배)

림경로동자구에서 자연동굴을 발견하고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구석기시대 문화층(2층)에서 인류(신인)화석 7점, 짐승뼈화석 9종에 300여점, 포분화석 274개를 발굴하였다.

전자상자성공명년대측정을 진행하여 이 유물들이 지금으로부터 2만 3 000±3 000년 전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인류화석(이발과 머리통뼈 조각)은 구석기시대후기에 산한개체의 30대의 녀성이라는것을 해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강동군 립경로동자구의 자연동굴에서 발굴된 화석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인류화석을 지명에 따라 《강동사람》으로 명명하였다.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심의와 내각결정에 따라 립경동굴유적은 보존유적으로 등록되었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평양시 강동일대에서 신인단계의 《강동사람》이 처음으로 발견된것은 이 일대가 인류문화의 려명기부터 사람들이 련련히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지역이라는것을 인류학적으로 명백히 밝히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녀자력기선수 최효심



기관차체육단 녀자력기선수 최효심은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낸 유능한 선수이다. 어려서부터 양각도축경기장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려기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기관차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높은 육체적능력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될 때에만 경기마다에서 우승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는 감독의 지도 밑에 훈련에 열정을 다 바쳤다.

그의 이악한 훈련기풍은 국제경기마다에서 훌륭한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2011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쟁취한 그는 2012년 아시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려기 녀자 63kg급경기에서 2위를, 제18차 아시아

경기대회 려기 녀자 63kg급경기에서 은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자기의 실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공훈체육인인 그는 더 많은 금메달성공과 조국에 보답할 일념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해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공화국선수권대회 려기 녀자 59kg급경기에서 또다시 우승하였다.

그는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줄넘기

줄넘기는 빙빙 돌리거나 고정시켜놓은 줄을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뛰어넘으며 노는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해동죽지》에는 《옛 풍속에 어린이들이 줄의 양끝을 잡고 뛰어넘으며 노는데 천여번씩 한다.

어린이들의 놀이로서 다리힘과 기운을 키워준다. 그 명칭을 《줄넘기》라고 한다.》고 써여져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어린이들속에 줄넘기 놀이가 널리 보급되어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근대시기에 이르러 탄력있는 고무줄이 리용되면서 종래의 줄을 돌리면서 놀던 놀이방법외에 줄을 고정시켜놓고 노는 새로운 놀이

방법이 창안되어 더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줄넘기는 혼자서 또는 여럿이 편을 나누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중에는 두손에 줄의 양끝을 쥐고 혼자 돌리면서 뛰어넘는 방법, 두명이 줄을 마주 쥐고 서서 크게 휘둘러는데 거기에 여러명이 뛰어들어 넘

는 방법, 줄을 팽팽히 늘이고 높이 뛰기를 겨루는 방법 등이 있다.

줄넘기는 반드시 노래가 동반되어야 흥취도 있고 재미있게 진

행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는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 시기에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줄넘기는 어린이들의 명랑하고 활동적인 놀이로서 팔과 다리의 힘을 키워주고 온몸을 단련시켜주며 물체에 대한 감각을 풍부히 해주는 유익한 놀이이다.

줄넘기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다음 다진 과와 마늘, 생강,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려 단지에 넣는다.

두릅을 데친 물은 발아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단지에 부어 김치를 익힌다.

본사기자



두릅김치

어있어 건강에 좋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릅 300g일 때 다진 마늘 5g, 소금 10g, 붉은물무우 100g, 고추가루 5g, 다진 과 20g, 다진 생강 5g을 준비한다.

두릅은 삶는물에 살짝 데쳐내고 붉은물무우는 큼직큼직하게 썬다.

민족로쇠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릅에는 비타민C, 비타민B1, 칼슘 등이 많고 칼륨, 디아스타제, 탄닌 등이 포함되어있다. 잎에는 헤테라제닌을 비롯하여 칼슘, 철분 등이 들

완전히 섭취하였다.

그후 제해권을 틀어쥔 고려수군과 인민들은 1383년 박두양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구를 무찔렀다.

1389년 2월 100여척으로 구성된 고려함대는 박위의 지휘밑에 왜구의 소굴인 시마를 공격하여 300척의 배와 해안시설을 모조리 불사르고 불합격했던 고려사람 100여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고려수군의 쓰시마공격이 왜구들을 얼마나 혼비백산케 하였는가 하는것은 그후 투항해오는 왜구들이 늘어나고 고개를 숙이고 무역하러 오는 일개봉건명주들의 사절들과 상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서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봉건정부에서는 무역을 허락하는 최우정책을 쓰면서 수군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아갔다.

왜구는 감히 우리 나라의 연해에 기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419년 5월 비인현 도문꽃사건이 벌어졌다.

실로 왜구는 악착하고 검질긴 도적의 무리였다.

천연기념물

용진이팝나무

용진이팝나무는 용진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립석리소재지마을의 길옆에서 자라고있는 한그루의 나무이다.

1880년경에 심은 이 나무의 높이는 4.5m, 뿌리목둘레는 2.4m이며 나무갓직경은 1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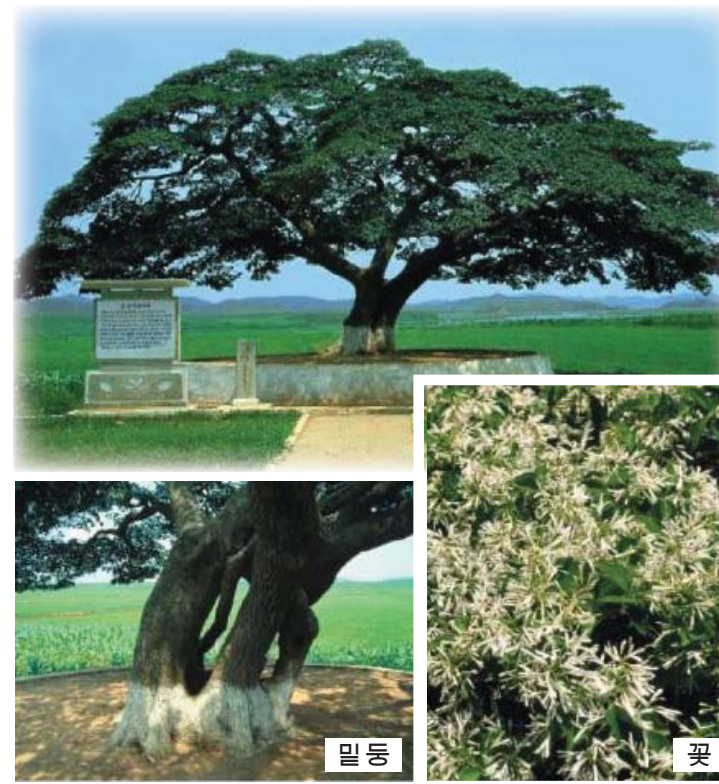
나무는 뿌리목에서 밑대가 자라고 0.8m정도의 높이에서 8개의 원기자가 뻗어 나옵니다. 높이에 비해 너비가 거의 3배에 달하므로 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있다.

꽃이 피면 나무전체가 흰색으로 단장되어 참으로 볼만하다.

용진이팝나무는 오래 자라고 특이한 모양을 한 나무로

서 생태특성연구와 마을의 풍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밑동

꽃

왜구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1364년 5월 진해현전투와 1376년 7월 홍산전투에서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수천의 왜구를 섬멸하였다.

고려봉건정부는 침입한 왜구를 맞받아 싸우는 한편 왜나라와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서로 이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고려의 북방정세가 긴장하여 병력의 거의 전부가 서북과 동북지방에 나가있는 틈을 노린 교활한 놈들은 남쪽으로 기어올라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바다가의 조세운반선들을 털어갔다.

그리하여 해안지대의 기름진 농경지가 목어하고 농민들이 재고장을 뜨는 비참한상태가 빚어졌다.

고려인민들은 가중스러운 수군건설이 벌어졌다.

그리고 살아남아 료지에 오른 놈들은 전라도 운봉에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군건설이 벌어졌다.

뼈질병치료에 효과적인 네디콜교감약

공화국의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개발한 네디콜교감약이 로년기, 중년기사람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골송소종과 같은 여러가지 뼈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므로 하여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네드리산나트리움, 비타민D3, 콜라겐펩티드로 구성되어있는 네디콜교감약은 골송소종치료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약물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제조한 약이다.

네드리산나트리움은 강한 뼈흡수억제제로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 뼈세포가 파괴되는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또한 뼈조직에 대한 강한 친화성과 항염증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뼈질병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약물들중의 하나이다.

비타민D3은 세포내 칼슘을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은 뼈의 기본구성 성분으로서 사람의 뼈질병에서 구조적 및 기능적역할을 한다.

본사기자



징벌의 검 (2) 글 립왕성, 그림 김운일

악착하고 검질긴 왜구떼

1419년 쓰시마전쟁의 직접적동기는 이처럼 비인현도 문꽃사건이라고 할수 있지만 맺히고 얽힌 력사는 썩 오래다.

왜구가 우리 나라 바다에 대대적으로 침입해오기 시작한 경인년(1350년)으로부터만 꼽아도 70년의 력사를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14세기중엽 일본의 대소봉건명주들은 오랜 내전에서 입은 손실을 회복하고 로동력과 식량을 얻기 위하여 해외에로의 침략을 꾀하였다.

한편 일본 혼슈지방에서 급속히 성장한 상인들과 내란과정에 몰락하여 무장강도-산적과 해적이 된 하층무사들이 또한 해외로 마수를 뻗치려 하였다.

이러하여 막부의 통제밖에서 활거하던 봉건명주들의 비호와 조종밑에 치부에 혈안이 된 상인들과 살인, 약탈에 이골이 난 하층무사-사무라이들이 해외침략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왜구였다.

왜구란 말은 왜놈도적떼를 이르지만 보통 14~15세기의 일본해적이란 말로 통하고있다.

경인년(1350년) 2월 왜구떼가 돌연히 경상도 바다가에 대대적으로 나타나 야수적이고 파괴적인 약탈만행을 개시한 그때로부터 왜구의 검질긴 침략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남해안을 소란케 하더니 마수를 더욱 뻗쳐서 해안 칠산바다에까지 깊숙이